# <반짝반짝 한국어> 3 –도, –조차, –마저

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4 episode 3.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.

F: 안녕하세요. 반짝반짝 한국어의 향기 입니다.

M: 안녕하세요. Stefano 입니다. 향기 씨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?

F: 네, 저야 항상 잘 지내지요.

M: 뭐 재미있는 일은 없었어요?

F: 재미있는 일이요?

M: My classes start tomorrow. But I had nothing really exciting happened during the break. So tell me how your vacation was instead!

F: 음, 저도 별거 없는데, 아~ 지난 주 토요일에 장치엔 송별 파티 했는데.. 장치엔이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

M: Did 장치엔 go back to her own country already? I thought she was doing well in Korea... Is her school over already?

F: 사실, 졸업을 아직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.

M: 아니, 왜요?

F: 그게요. 이야기가 좀 길더라고요.

M: 향수병 같은 건가? I also got homesick when I came to Korea the first time... You know, you just miss home pretty much everyday.

F: 그런 것 같기도 하고..저는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힘들었나 봐요. 한국에 처음에 와서 사귀었던 친구들도 많이 떠나고, 한국어 공부도 어렵고, 전공 수업도 어렵고, 그런데다가 이번 학기에는 믿었던 성적조차 안 좋게 나왔대요.

M: 아, 그랬구나

F: 그리고 장치엔 남자 친구 알죠?

M: 알죠. 키 크고 훈남 스타일의 그 남친! At the beginning 장치엔 came to Korea because of him, did she?

F: 네, 맞아요. 그런데 그 남친이 글쎄 바람을 피웠대요.

M: Did he cheat on her? She must have been really mad at him...

F: 그러니까요. 남자친구하고마저 그렇게 안 좋게 끝나고 나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진 것 같아요. 아무튼 남자들이 문제라니까! 그러니까 스테파노 씨도 잘해요!

M: 네?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나한테 그래요? 근데요, 아까 향기 씨가 장치엔한테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할 때 '남자 친구마저'라고 했지요?

F: 네. 마저

M: 그 말이 저는 '도'하고 뭐가 다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.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?

F: 아, '-마저'요. 이건 뭔가 마지막이란 느낌이 있는데

M: Oh I see, and I guess that is why you didn't use it for the first time you mentioned it.

F: 네, '-도', '-조차', '-마저'는 다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쓰는데요. '-도'는 알죠?

M: '-도',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에요. 향기 씨도 학생이에요. 이런 거 말하는 거죠?

F: 네, 맞아요. 우선 '-조차'는 여러 가지를 말할 때, 그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때 쓰는 것 같아요. 아까 장치엔이 성적조차 낮게 나왔던 것처럼요. 장치엔이 공부 잘하는 거 알죠?

M: 네, 알죠.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장치엔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. 그럼 '-마저'는요?

F: 음, '-마저'는 정말 마지막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요, 그래서 '마지막으로 믿었던 남친마저 나를 떠났다.'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.

M: Oh so '-마저' can be used only for the 'last' thing or happening. Is that right?

F: 네, 그런데 '-조차'와 '-마저'는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하고 잘 어울려요. 장치엔 상황처럼요..

M: 그렇구나. 이제 좀 알겠네요.

F: 그럼, 스테파노 씨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?

M: 음, 부정적인 것에 많이 쓴다고 했죠? 그럼, 잘 들어보세요. '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다.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셨다. 우리집 강아지 하모도 없었다. 그런데 먹을 것도 없었다. 밥도 없고 죽도 없고, 우유조차 없었다. 그래서 부모님께 집에 들어올 때 먹을 것을 사다 달라고 전화를 했다. 그런데 전화마저 받지 않았다!'

F: 잘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음식이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되죠.

M: 집에 들어오면 나가기 귀찮잖아요.

F: 으이구~참 이 말들은 다 조사니까 명사 뒤에 붙여 쓰는 거 알죠?

M: Yes, postpositions come after noun. Now I got it.

F: 여러분, 오늘 처음 배운 조사'-도', '-조차', '-마저'는 어땠어요? 여러 개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'-도'는 다 알고 있었죠? 그런데 거기에 감정적인 것이 포함된 '-조차', '-마저'는 부정적인 상황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언제 써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화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 Stefano 씨,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.

M: 네, 우리 주소는요. www.facebook.com/twinkling.korean 입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.

F: 자,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?

M: 네, 좋아요. 이번 코너는 드라마 속 명대사죠?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?

F: 오늘 대사는요. 드라마 '프로듀사'에서 나온 대사예요.

M: Oh that's the drama about the broadcasting station? I also found the drama interesting. Is 아이유's speech again?

F: 아니에요. 오늘은 선배 피디 공효진과 후배 김수현 사이 이야기인데요. 공효진을 좋아하는 김수현은 공효진이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주다가 옛날 앨범을 하나 발견해요.

M: 앨범이요? Does he steal the picture?

F: 아니에요. 앨범을 보던 중 사진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공효진 옆에서 같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공효진에게 막 달려가서 보여줘요.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. 그때 공효진이 말합니다. "오다가다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"

M: 오다가다 만났을 수도 있었겠다. So, did they meet or not?

F: 잘 보세요. 우선 오다가다는?

M: 오다가, 가다가?

F: 네, '왔다갔다 하다가'란 의미죠. 그럼 "만났을 수도 있다"는요?

M: Well "을 수도 있다" is a supposition... Is "만났을 수도" a supposition about the past?

F: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을 수도 있다, 아닐 수도 있고요. 뒤에 붙은 '겠'도 추측을 표현하는 거니까 공효진은 동네에서 봤을 수도 있었겠다고 가볍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.

M: 아, 과거에 대한 추측. It's certainly a useful expression.

F: 그렇죠? 자 그럼 잘 듣고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. 그럼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.

"오다가다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" *3

M: 오늘 배운 표현은 형태가 중요하니까 잘 기억했다가 정확히 써 봐야겠어요.

F: 맞아요. 이제 미래에 대한 추측도 할 수 있고, 과거에 대한 추측도 할 수 있게 되었네요. 여러분 오늘 대사 어땠어요?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도 '프로듀사'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다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. Stefano 씨, 다시 한번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.

M: 네. 우리 주소는 www.facebook.com/twinkling.korean 입니다. 메일 주소는 twinkling.korean@gmail.com 입니다. 여러분,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

F: 여러분,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M: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See you and don't miss our next episode.

M: Twinkling Korean,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.

© 2015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.